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전통음료에 관한 인지도 및 기호도 변화 : 1995년과 1998년의 비교

김창임*, 혜전대학 식품영양과, 전예숙, 청운대학교 식품영양과

The Change of preference to traditional beverage for the college students around the Chungnam area. Changim Kim* Ye Sook Ju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yejeon College, Hongsu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woon University, Hongsung

전통음료는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일부 상류층에서만 마시던 차가 고려시대에 들어와 다례의식과 약용으로 승려계급 및 상류층에 보급되었다. 승유억불정책을 하던 조선이 건립되면서 차 문화는 점차 일반 대중에서 멀어지게 되고 술이 의식에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음료들의 기호품 조리가공기술이 크게 발달된 시기이다. 식민지시대와 해방, 한국전쟁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기호품에 속하는 전통음료는 발달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청 문화가 재정립되어 생활 속에 자리잡기도 전에 외국음료의 홍수와 같은 유입을 맞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음청 문화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 생성되어 역사와 함께 계승 발전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는 전통음료의 성분, 제조법 면에서 활발하나 소비실태나 소비층의 기호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서북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음료를 계승하고 소비증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충청 서북부 지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1995년 6월 약 2주간에 걸쳐 157 명을, 1998년 6월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29종의 전통음료에 관한 인지도, 섭취빈도, 기호도, 전통음료와 관련된 식행동, 계승발전 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 for Wi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조사 연도간 유의적인 차이를 χ^2 -test를 실시하였고, 전통음료의 섭취빈도, 기호도는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판별분석을 통해서 전통음료 기호도 중에서 시간흐름에 관련된 보다 중요도가 높은 최소한의 변수를 찾아내고 이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이 변수로 구해진 판별식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37% 였고, 용돈은 95년에 평균 11만 8천원, 98년에 17만 6천원으로, 전통음료값은 95년에 5천320원, 98년에 5천200원으로 나타나 전통음료값은 오히려 줄었다. 인지도 95년도에는 녹차, 울무차, 식혜의 순이었고, 98년에는 녹차, 식혜, 유자차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95년도에는 인삼차, 녹차, 울무차의 순이었고, 98년에는 녹차, 유자차, 인삼차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만들어 먹은 적이 있는 음료로는 95년에 식혜, 수정과, 승냥의 순으로, 98년에 식혜, 승냥, 수정과였다. 전통음료의 기호도중 일변량 분석에 의해 년도간 유의차를 보인 항목은 녹차, 국화차, 녹두차, 계피차, 칩차, 생강차, 수정과, 식혜, 오미자화채, 떡수단이었고, 이중 녹차는 유일하게 95년에 비해 98년에 기호도가 증가한 항목이었다. 판별분석에 의해서 두 집단간에 유의성이 있는 기호도 품목의 변수는 녹차, 국화차, 두충차, 칩차, 당귀차, 오미자화채였다. 판별식에 의한 예측 확율은 69.1%로 나타났다. 판별분석을 통해 전통음료의 기호도는 95년과 98년의 조사결과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전통음료의 인지도, 보유도, 기호도는 전반적으로 98년에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전통음료의 평가는 긍정적이었고, 계승발전되어야 하는 이유로 '건강에 좋으므로'가 모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